

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주제가 되시며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생령 바쳐 수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5월 28일 (토) 제 158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총회장에 고택원 목사,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 선출

KAPC 제 40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제 40회 총회가 5월 17일 오후 7시 뉴저지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고택원 목사(필라 새한장로교회), 부총회장에 유재일 목사(앵커리지열린문장로교회)를 선출했다. KAPC총회는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사6:8)라는 주제로 목사 총대 173명, 장로총대 18명 등 총 191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번 총회는 20일 폐회예배까지 3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0회 총회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필라노회 진행으로 열렸다.

신임 총회장 고택원牧사는 “총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원으로서 총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총회가 지난 몇년 간의 어려움을 씻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회기를 만들고 싶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 시간을 회원들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회의 시간 운용에 변화를 주려 한다. 또한 임원들의 지출에 회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 공천부를 통한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고택원 목사(필라)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가미) △서기: 허상회 목사(가든) △부서 기: 김미성 목사(서북미) △회록서기: 김대업 목사(뉴잉글랜드) △부회록 서기: 한일철 목사(동남) △회계: 전성호 장로(뉴욕) △부회계: 박찬호 장로(중부).

개회예배는 총회장 김영수 목사의 사회로, 전태준 목사(중앙) 기도, 최기정 목사(카나) 성경봉독(사6:1-10), 필라노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고택원 부총회장이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서기 조흥철 목사 광고 후 윤종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송찬우 목사 집례로

이준호 목사의 기도 후, 최중현 목사가 고린도전서 5장 18절로 20절을 봉독하고, 송찬우 목사가 “화목제와 성찬”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분명 및 분잔을 거행하고 이영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개회선언 후 회원점명, 최해근 필라노회장의 환영사, 서기 절차보고가 있었다.

고시부는 총회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결과 총응시자 21명이 모두 합격한 것을 보고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재성(북가주), 박민우(뉴서), David 박성권(뉴욕), Timothy 박진호(뉴동), 이성재



총회장 고택원 목사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

(중부), 정우현(중부), 박선강(가나나), 김석인(북가주), William Kurt Schwartz(중부), 김대진(뉴욕), 박병섭(뉴욕), 심세진(중부), James 임재완(중부), 박찬양(필라), 정성만(필라), Thomas 김명현(필라), 정효균(Xiaojun Zheng 중부), Daniel 김동규(뉴동), 강현명(필라), Joseph 김민우(필라), 문성재(필라).

(3면으로 계속)

동성애 문제, 2018-2019년 총회로 연기

‘2016, 미연합감리교회(UMC) 총회 소식(2)

5월 16일 총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청원안들을 다루기에 앞서 사법위원회, 고등교육자문위원회, 그리고 총회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먼저 했다. 공식 투표로 임원진들을 구성하자, 흑인의 인권(“Black Lives Matter”) 시위로 총회가 잠시 중단됐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며 150명에 가까운 연합감리교인들이 총회 전체회의 장소에 들어와 억압받고 소외 받는 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후 속개된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는 동안 이뤄져졌다.

총감독회의 회장(Bruce Ough감독)은 LGBTQ 사람들을 온전히 교회에 받아들이는 문제로 2016 총회 중 교통과 분노가 끓고 있는 것을 인정했으나, 총감독회는 교회의 화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감독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단 내의 이견을 살펴보고 2018년에는 회의를 열어 교단 분열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었으나, Ough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Ough 감독은 또한 감독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교회 일치를 위해 18일 동



한반도 평화위해 지지 기도 요청

루완다를 UMC의 준연회로 만드는 청원안을 승인했다.

5월 17일: 교단 분열 소문을 종식시키다!

대의원들은 2천만 달러 교회성장 전문가 그룹에 투자, 미국의 감독 종신제를 폐지,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 등의 안건들을 심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교단 분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

성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교단 내 사역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 중 2천만 달러를 미국 내의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로 전환하는 청원안을 사법위원회에 의뢰했다. 사법위원회는 이 계획이 연합감리교회 헌법에 비취 적법성을 판단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7면



8면



16면

유럽 우익 지도자들처럼 선동전술로 소외 계층 공략한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인/터/뷰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Southern California Seminary(SCS)는 미국 학교로는 처음으로 **심리상담학 석사(MACP)**와 **결혼 가족 치료사(MA in MFT)** 그리고 **심리상담학 박사(Doctor of Psychology)**를 한국어 과정(한/영 이중언어)으로 개설하였습니다.

SCS 는 미 연방정부 TRACS 인가 학교로서 The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와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에서 인증 받은 학위과정 입니다.

* I-20 발행-유학생 환영

SCS의 Behavior Sciences 대학원은

- 석사 및 박사 과정 후 CA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하시면 직접 클리닉 개업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은 전문상담사, 임상 심리 치료사, 가정사역자 등 비영리 기관, 병원, 교회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 동급의 다른 학교 학비와 비교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실 수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보조신청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이 가능하며 부부장학금, 교회 및 기관 사역 장학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상담, 약물중독 상담, 전문코칭 등 여러 상담 관련 교육 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NEW

- MA in Christian Ministry (신학부 석사과정: 평신도, 직분자, 교회 리더를 위한 1년 석사과정 개발) 한국어 신학부 : 안국환 교수 kukwhan.ahn@socalsem.edu, 619.201.8982

심리학교수님 초빙

박사학위 및 라이선스 소지하신분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amuel.lee@socalsem.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00 Wilshire Blvd. Suite 700 Los Angeles, CA 90057
www.socalsem.edu/korean

이사무엘 samuel.lee@socalsem.edu 323.529.3339 / 323.205.5880
이윤진 yunlee@socalsem.edu 323.248.1648



시론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저는 오늘 한 선교사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입니다. 제임스 홀은 스크랜튼이 세운 “시병원”에서, 로제타 홀은 “보구여관”에서 각기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임스 홀은 평양으로 가 청일 전쟁이후 부상병들과 많은 백성들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디프테리아까지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양에 먼저 와있던 모택 선교사가 평양에서 인천까지 배편을 마련해줍니다. 그는 인천에 도착하여 1주일 정도 지나서 부인 품안에서 “내가 평양 오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가 죽게 되었다고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평양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평양과 같이 완악한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 첫 번째 희생제물이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아들인 웨우드 홀이 만 1살, 뱃속에 7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안식년 겸 미국 와서 아이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로제타는 “하나님! 할 일 많아 우리 부부를 조선에 보내셨는데 당신은 왜 남편을 데려가셨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조선으로 다시 가라.”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갑니다. 남편의 못다 한 일하자 마음 먹고, 평양으로 올라가 남편 제임스 홀 박사를 기념하고자 “기.홀 병원”과 평양 최초의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세웁니다. 얼마 후 미국에서 낳고 돌아온 그 딸이 만 3세 되던 해에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어린 딸을 아빠가 묻혀있는 마포 양화진에 함께 묻기 위해 얼마인 로제타 홀은 이 길을 걸으면서 일기를 씁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아빠 옆에 묻히고자 내 딸은 평양에서 서울로 갑니다. 이 길이 아빠가 평양을 구원하기 위해 수도 없이 걸어 다녔던 바로 그 길입니다”라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인 웨우드 홀은 3살에 아빠 제임스 홀을 잃어버리고 5살 때 동생 이디스 홀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아빠와 동생을 앓아간 조선이 싫어 미국으로 돌아가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고 미국서 살겠다고 임버트처럼 말합니다. 1906년 하디 선교사가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바로 그때 이 13살난 웨우드 홀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은혜와 성령이 물 붓듯이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의사가 되어 조선에 뼈를 묻겠습니다. 복음으로 조선을 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메디컬스쿨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당시 조선에는 폐결핵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웨우드 홀은 “나는 조선의 폐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에 앞장 서겠다”고 결심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인 메리언 홀과 함께 폐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섭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일을 만들어 결핵퇴치운동을 벌인 사람이 바로 웨우드 홀입니다. 이 부부도 양화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중 최초로 순직한 윌리엄 제임스 홀, 그의 아내인 로제타 홀, 그들의 아들인 웨우드 홀, 며느리인 메리언 홀, 어린 시절 사망한 에디스 홀. 총 5명의 선교사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망한 에디스 홀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로 봉사한 기간을 합치면 무려 73년이나 됩니다.

(3면으로 계속)

유럽 우익 지도자들처럼 선동전술로 소외 계층 공략한다!

뉴스위크,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끌리는 이유 분석(상)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기이한 선거운동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봤지만 아직도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한다. 부동산 거부인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후보다. 이제 이변이 없는 한 그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정치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정치 논평가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다른 경선후보들을 완파시킨 현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

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우익운동과 빼달았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치기 때문에 다분히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그들을 분열시켰는지, 왜 지금까지 미국에 선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든다. 트럼프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는 뜻)”를 내세우기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정치적인 힘을 차용한다.

트럼프의 유세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달리 록음악 콘서트나 대형교회의 통성기도 시간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트럼

프는 “해고야!”를 내뱉고, 협상의 대가이며, 자기 이름을 딴 스테이크 레스토랑도 냈다.



플리니를 떠받친 것은 “당이나 이념보다 그 개인을 추종한 세력”이었다. “무술리니 개인을 향한 그들의 열광

단순한 폭력 사용이 아닌 ‘이례적인 존엄성, 영웅주의, 모범적 성격’에 바탕을 둔 지도자를 묘사하기 위해 ‘카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를 존경할 만한 후보로 보지 않지만 지지자들은 그가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쌓아올린 부(富)로 인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막대한 재산 덕분에 트럼프는 선거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사납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지지자인 닉 글로브(62)는 신시내티 교외의 유세장 밖에서 “미국 정치인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매수되고 돈에 팔린다”고 말했다. “

독재자들 사용한 정치전술 차용... ‘개인숭배가 이념 능가’ 입증 연설문 작성자도 필요 없고 선거자금 마련위해 비위도 안맞춰

프는 지난 3월 중순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외곽에서 유세하는 동안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그치기보다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성조기를 휘두르고 프로야구팀 신시내티 레즈의 모자를 쓴 중년의 지지자는 그에게 “도널드 트럼프,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은 미국의 미래야”라고 말했다. “오늘 당신을 보려고 17시간이나 기다렸다. 떠나기 전에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한 백인 중년 여성은 트럼프에게 포옹해 달라고 했다. 다른 여성은 그에게 “돈에 팔리지 않는 대통령 후보를 보니 너무 신선하다”며 “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당신의 말을 믿는다”고 얘기했다. 트럼프는 활짝 웃으며 “그게 질문보다 훨씬 낫다. 아주 마음에 든다”고 답했다.

물론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도 열성팬이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 많은 팬을 거느렸다). 그런 경우 유권자들은 이슈보다 이미지에 중점을 두며 특정 후보의 상징주의에 열광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다. 전용 헬기를 타고, NBC 방송의 인기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견습생)’에서 “당

세계 다른 지역의 지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정치 브랜드가 바로 그것이다. 비평가와 코미디언들은 트럼프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우간다의 이디아민 등 악명 높은 선동가에 견준다. 그가 폭군처럼 통치할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과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정치 전술을 트럼프가 선거운동에 그대로 차용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외에도 현재 유럽 등지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후보를 무시했다. 그들은 유권자가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면 그의 알맹이 없는 실체가 드러나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초기의 반대론자들이 너무도 그를 오판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번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남긴 교훈은 강한 개인숭배가 이념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수많은 선동가들이 입증한 사실이다.

영국 버밍엄대학의 소련·러시아 역사 전문가 아르폰 리스 교수에 따르면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무

적인 지지는 전통적인 당 구조를 우회하거나 뒤집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조셉 새순 부교수는 트럼프와 역사적인 선동가들 사이에 다른 유사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최고 보좌관은 바로 자신이며 연설문 작성자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를 아우르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들 모두 자신의 말 그대로 연설하고 싶어 했다. 개인숭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자신이 독존적 존재로 다른 사람과 아무 것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는 법치나

그렇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바로 트럼프다.”

영국 배스대학의 정치학 교수 로저 이트웰에 따르면 트럼프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가 기성 정치를 초월한다는 지지자들의 믿음에서 나온다. 그의 권위는 TV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명성을 넘어선다. 이트웰 교수는 “연예계의 인기는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이며 대중 정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을 제공한다. 지지자들에게 “일체감”을 준다고 이트웰 교수는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30th Anniversary

1986-2016

Midwest Universit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Master Degree Programs

Doctoral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동성애 문제, 2018-2019년 총회로 연기

(1면에서 계속)

텍사스 연회의 대의원, 하우스(Donald House Sr.)는 “전략과 성장 상임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 사람이다. 경제학자인 그는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단단한 미래를 위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14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계획은 교회성장 전문가들과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다.

또한 UMC는 1989년 이후 다시 찬송가를 만들게 됐다. 새찬송가는 온라인 클라우딩으로 만들며, 수요에 따라 인쇄 출판도 할 계획이다. 주류교단이 첨단기술의 찬송가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인으로 구성된 찬송가편찬위원회 개설이 합의된 의사일정(consent calendar)에 포함돼 승

인됐다. 2020년 총회에서 찬송가자문위원회의 제안이 승인되면, 빠르면 2021년에 새찬송가가 나오게 된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수 인종들을 위한 목회강화안들(Asian American Language Ministry Plan, Pacific Islander Ministry Plan, the National Plan for Hispanic Ministry, Korean Ministry Plan)이 승인됐다.

5월 18일: 예상대로 인간의 성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대의원들은 그간 4년에 한번 씩 토론한 인간의 성문제에 관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인간의 성문제 관련에 관한 토론을 보류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기도록 하자는 총감독회의의 추천안을 받아들이기로 이날 오후 늦게 결정했다. 이 추천안을 발표하면서 총감독회의의 의장(Bruce 감독)은 “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 연합감리교회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들은 또한 이러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총회를 2018년 또는 2019년에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월 19일
인간의 성에 관련된 법안들을 투표할지 아니면 감독위원회가 임명하기로 한 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인지를 하루 종일 토론한 후, 대의원들은 후자를 택했다. 이 특별위원회의 비용은 1백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대의원들은 미국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마스코트나 상징을 스포츠 팀들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악영향에 관한 의식교육을 UMC 기관들이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

안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이 전의 청원안에는 UMC 단체들이 그런 마스코트나 이미지를 쓰는 스포츠 팀들이 소속된 도시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임법위원회에서 그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한국 전쟁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사역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장위현 목사, 김정호 목사, 조건삼 목사, 우경아 목사 등이 연단에 올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UMC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지와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5월 20일: 증액된 예산 통과
대의원들은 2017-2020년 회계 예산을 지난 회기 예산보다 소액 증가된 6억4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16번째 최소 예산 기록을 세울 뻔한 2016년 교단 총회 대의원들에게 처음 제출된 5억9천9백만 달러보다 다소 증가된 액수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1면에서 계속)

이어서 공천부는 임원선출을 보고하고 신규임원 교체에 있었다.

김영수 전 총회장은 신임 총회장 고택원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전달한 후, 신규 임원을 교체하고, 새한장로교회 예전도회가 신 임원들에게 회장을 분배했다.

이어 고택원 신임 총회장의 취임인사 후 전 총회장 김영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둘째 날 낮 시간에는 캠퍼스터 밀레니엄 극장에서 성극 “삼손”을 관람하기도 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8시부터 “선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예배는 선교회 회장 이용걸 목사의 사회로 기도 하태수 목사, 뉴욕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싱어스의 특별찬양 후 GMS 본부 총무 조기산 목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시:133: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진완(아르헨티나), 서샬롬 부부(필리핀), 전봉주(글로벌 hope)를 파송선교사로 파송하고 김영수 목사의 격려사 후, 고택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 열린 총무보고는 지난 회기 각 노회별로 의견을 물었던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개혁개정 성경 수정의 건: 찬성 17, 반대 10로 가결됐고 ▷목사장로 70세 정년제의 건: 찬성 10, 오후에는 친선사절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Dr. Peter A. Lillback(국제프로그렘 디렉터 권혁민 목사 동역), 비브리컬 신학교 총장 Dr. Frank A. James III,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 총회장 안만길 목사(서기 홍문균 목사, 총무 박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박영길 목사(서기 박만수 목사, 총무 최희용 목사), PRCC(Presbyterian Reform Church Chaplin) 교단 김주은



선교의 밤 예배에서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싱어즈가 특별찬양하고 있다.

목사 등이 인사했다. 인사부 사업 보고에서는 남가주노회가 한의한 부총회장 임후보자 임후보 횡수 제한은 현행대로, 총회 임원 공천 비례 대표제 현의건은 현행대로, 총회 임원회가 한의한 ‘부총회장 1인, 장로 1인 제도’ 검토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동남아노회가 정원한 총회 방송국 개국과 운영을 위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공식 명칭 사용 허락, 임원회에 맡겨 1년 내에 방송국을 실사해 차기 총

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당에서 제안한 안건인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찬송가협회에 이사 파송 요청”은 허락하고 임원회에 일임해 처리토록 했다. 총회상설 재판국 보고는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발기로 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는 조정기(로스) 목사 사회로 신종식(서북) 목사가 설교한 후 총회장 고택원 목사 축도로 총회는 모두 마쳤다.

(유원정 기자)

시론

(1면에서 계속)

5명 모두가 의사라는 좋은 직업, 미국이라는 편하게 평평거리고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뒤로하고 조선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도구로 사용되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들 선교사의 삶은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이었습다(요12:24).

오늘 우리들과 교회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어린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습니까.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

에게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지평을 선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전령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배교파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과 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등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억울한 자가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답을 찾습니다. 바로 “나와 교회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넓혀져 갑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도 일해야 합니다(요5:17). 복음은 나와 우리 교회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안됩니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시키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어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pastor.eun@gmail.com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40편. 능력의 필요성을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자로 살아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간다. 또 이어 4장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미움과 분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로부터 사람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여 죄가 솟아나고 그 죄는 세상 끝 날까지 인간을 통하여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마귀로부터 온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의 인격과 육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는데 어둠의 사람, 불행한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3절에 보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아니이다’라고 했다. 죄에는 사망의, 저주의, 불행하게 하는 독이 있다. 그 사망의 독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행의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가 나의 말을 통하여 흐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을 품고 사는 자요, 사망이 솟아나서 각자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자다. 스스로가 저주의 독이 솟아나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람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과 같이 그는 나병환자였다. 스스로 그 몸이 죽어가는 죽을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 안에서 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화철한 무덤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함과 같이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새 생명이신 성령으로 사는 자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가 죄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마치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움을 받듯이 말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감동함을 입히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채워 주신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능력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힘을 받는다고 하셨다. 능력을 받으라. 그리하여야 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 죄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오래하였다고 해서 늙은 성도가 되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이다. 고목나무가 되지 말라.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수고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라.

sangdkim@yahoo.com

복음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82년 8월 설립 이래 34년간 목회를 하신 김상덕 담임 목사님의 은퇴로 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 격

- 본 교단 KAPC(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 대학원 이상 졸업
- 이민 목회 담임 경력 5년 이상
- 40세- 55세 연령
- 한국어, 영어 사용
- 미국 체류 신분에 적합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목사 안수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자기 소개(성장 배경, 소명, 목회 경험, 가족 소개, 사모 신앙고백서 포함)
- 목회 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동영상 2편(CD. 또는 USB). 혹은 동영상 주소.
- 담임목회를 하는 목사 추천서 2부

제출 마감: 2016년 6월 30일
제출 방법: 우편 발송
제출 주소: Elder. Chris K. Choi 2651 W. Pendalton Ln. La Habra, CA 90631

기타: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 서류” 기재
- 이력서 뒷부분에 연락처 기재
-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교회 위치는 Orange County에 있는 Fullerton City 인근 La Habra City에 있습니다.
문의: 청빙위원회
E-mail chriskchoi@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복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정말 반갑다(?) 친구야

제가 잘 아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단 둘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단

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친한 친구 목사님 가정 이 대서양을 건너 그의 가정을 찾

아왔습니다. 두 명만 살던 집이 갑자기 친구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가 같이 지내게 되어 식구가 총 여섯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명이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려고 하니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서로 헤어져서 살면서 있었던 삶과 목회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장기(?) 투숙자들이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데도 목사님은 그다지 슬프거나 섭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가족을 차에 태우고

공항으로 가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약 4개월 후 겨울이 되었을 때, 친구 목사님 가정이 또 다시 그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어(?) 두 주는 다른 집에 머물고 나머지 두 주만 목사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도 6명이 화장실 하나 뿐인 조그만 집에서 두 주를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 겨울, 목사님이 살던 지역이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다고 할 정도로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과 차 위에 눈을 치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밖에 나가보니 그의 자동차와 집 입구에 쌓인 눈이 불도저로 밀어내듯이 말끔히 치워져있었습니다. 누가 그 많은 눈을 치웠을까? 범인은 바로 그의 집에 자주 나타나 몇 주씩 머물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그가 아주 반갑지만은 않았던 목사님도 그 날만큼은 친구가 집에 머무는 것이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했나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이고 목사의 마음도 갈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가웠던 친구가 별로 반갑지 않고, 별로 반갑지 않던 친구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못 보면 보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마음. 그러나 때로는 헤어져도 별로 섭섭하지 않는 마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반가운 마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마음,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잠언17:17).

푸 / 른 / 초 / 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기도원 담임)



지금음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큼 그 어느 것과 다른 야무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니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행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결단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배웁니다.

1. 우리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땅은 보장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땅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머물면서 막연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1)말씀 따라 떠나야 합니다(창 12:4)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형편이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머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화려하고 편한 환경에서 친족들과 헤어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과 상의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행17:30).

2) 모르지만 떠나야 합니다(히 11:8).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지라도 분명하게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도 오늘 주어진 하늘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하란 땅을 떠나 기대 속에 머물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창12:10). 확인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라 헛되지 않습니다. 혹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벧전5:10). 이 일로 인해 귀감이 될 만한 하란을 떠났던 결단이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에 궁여지책이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결단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머물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이든 어리석은 일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떠나는 결단과 함께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3.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창13:1).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종살이했던 애굽 땅으로 끊임없이

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을 2:12). 2)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은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질도 다 돌아와야 합니다. 몸만 성전에 돌아오는 것으로는 안됩니다(계2:5). 안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는 것도 아닌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3)결단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실한 결단은 예배와 삶으로 나타납니다(창13:4).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의 확실한 변화는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의 예배에 눈물 젖은 신앙이, 선포되는 말씀에는 깨달음과 감격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생활에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자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좀 먼길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3).

삶의 결단

(창세기 13:1-3)

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얻어낸 약조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행복의 약속입니다.

3)이웃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7). 바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 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웃

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날 수 없던 곳을 떠났던 대단한 결단도 갈등할 만한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맞서서 해결하든지 도망하든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도움 될 듯한 풍요롭고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에 간 그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던 그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굽 땅에 머무르려 합니다(창12:13).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을 듯합니다.

1)자신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8, 19).

돌아가려고 했던 광야에서의 이슬라벨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담이 위험하고(잠18:12). 선줄로 아는 자기착각이 넘어지게 합니다(고전 10:12).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아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가족들과 짐승 떼를 몰고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결보기와 달랐던 애굽 땅은 그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을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이었습니 다.

1)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만 하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마저 잃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작 가나안 땅에 머무르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I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정의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6월 7일 꼭 투표하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236년 역사상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아파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어떤 성경적 가치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까요?

△동성결혼합법화 폐지: 결혼의 정의를 다시 남,녀의 연합으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와 Political Party(정당)를 뽑아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회복: 수억 명의 죄 없는 태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Roe vs Wade(낙태) 법안 폐지 또는 수정할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절실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 회복 **절실:** 지금 오바마 정부에 의해 크리스천 신앙은 “교회안”에만 묶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세가 다된 할머니 꽃집과 집안이 다 날아가고, 케익집 주인은 집값보다 비싼 벌금을 물어야하고, 동성결혼 주례를 해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목사님부부들이 감옥을 가고, 5살짜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교육을 받는 것에 질문했다고 부모는 감옥행 그리고 아이는 정학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3-4년 동안 수천 케이스이고 이러한 심각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역차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 강화시키는 것-친이슬람에서 이슬람 국가가 될 위험에 빠지는 미국!

크리스천에 대한 역차별과 핍박은 늘어나고 있지만 친이슬람 정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 안에서 이슬람을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미 많은 대학가들안에서는 친이슬람 흐름이 학생들 사이에 쇄니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이슬람은 ISIS 테러와 상관없는 “평화의 종교”라고 계속 시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자와 어떤 당(Political Party)이 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공화당으로 나온 트럼프(Donald Trump)는 말만 공화당이지 이 사람은 보수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역(Track of Record)과 증거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를 뽑는다는 것이 도박과도 같은 것이기에 진짜 크리스천 보수파들은 트럼프를 뽑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7-8년간 사악한 법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쏟아 부은 민주당의 후보자들 힐러리(Hilary Clinton)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까지 오바마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친동성애, 친이슬람 성향이며, 문란한 성교육을 지지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거짓말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Child-Sex, 어린이와의 성관계도 “성취향”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쓴 사람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내렸는데, 샌더스는 이미 1972년 자신이 쓴 책, “Woman Fantasizes about being raped - 여자는 3명 이상의 남자에게 강간 당하는 것을 원하는 꿈을 꾸다”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슬람화 할뿐 아니라 “그 다음”을 지향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 정책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친이슬람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미국 최초의 무슬림 U.S. Congressman-Keith Ellison(민주당, 미네소타)을 뽑았으며 미국최초의 무슬림으로 Andre Carson(민주당)을 House Committee Intelligence로 뽑았습니다. 지금 백악관에는 무슬림 정치인, 법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슬람법인 샤리아법(Sharia Law)을 미국 헌법으로 올리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은 그들의 친이슬람 정책을 막고자 하는 공화당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슬람 단체인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s(CAIR)이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즈, 플로리다, 텍사스, 버지니아 주에 사는 무슬림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52%, 버니 샌더스(민주당) 22%,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7.5%

민주당은 2012년 이미 Democratic Platform(민주당 정당)에 친동성애, 의무적인 낙태, 모든 종교(친이슬람을 그렇게 적음) 존중을 합법화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힐러리나 샌더스 후보자를 뽑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의 오바마 정부에 만족하고 앞으로 미국이 더 깊이 “친동성애, 친이슬람, 반기독교, 문란한 성교육 정책”으로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이 힐러리나 샌더스를 뽑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예비선거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주세요!!

지금 예비선거가 남아있는 캘리포니아와 그 외 몇 주에 남아있는 진정한 보수 크리스천들과 기독교 단체, 리더들은 얼마 전에 물러난 테드 크루즈(Ted Cruz)를 예비선거 때 뽑을 계획이라고 알립니다.

참고로, 예비선거는 후보자가 물러났어도 후보자들의 리스트는 예비선거 후보자에서 내려지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그들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시민들의 투표에 따라 후보자들은 11월이 되기까지 경주는 계속 됩니다.

테드 크루즈는 2016년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 중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국가적 리더의 성품과 실력을 가장 많이 갖춘 후보자며, 공화당 안에서 무서워 할만큼 깨끗한 정치적 전력과 명성이 높은 후보자입니다. 단지, 그는 트럼프처럼 미디어와 언론에 수천억씩 돈을 쓸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정치인이기에 자금 조달로 더 이상 예비선거 경주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GOP에서는 테드 크루즈의 실

력과 전력, 성품을 귀하게 보기에 지금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선거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신다면 90%가 민주당으로 결집된 캘리포니아에서 테드 크루즈가 필요한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테드 크루즈는 다시 11월에 경주를 하도록 나오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썩은 사과 vs 독이 든 사과” 중 선택하세요

“썩은 사과”는 트럼프이고, “독이 든 사과”는 힐러리와 샌더스입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먹으면 살지만 독이 든 사과는 사과 어디를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썩은 사과와 썩은 부분이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독으로 가득 찬 지금의 정부(민주당)보다는 가정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희망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독이 든 것은 이미 독이 가득하기에 도려내도 독은 계속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선거, 기도하시고 꼭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 자녀의 미래, 가정의 안전, 교회의 안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날짜

유권자 등록: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세요. Political Party(정당)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편하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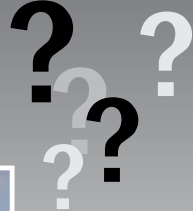
http://registertovote.ca.gov/한글을 선택하세요.
Vote-By-Mail(집에서 부치는 투표): 5월 31일까지 부치세요. 못부치신분들은 6월 7일 직접 투표장에 가서서 drop하세요.

[편집자: 이번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Tvnext.org@gmail.com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내년에 이집트 성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IS에 의해 살해된 21명의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콥트교회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이집트 인구의 90% 가량이 현재 이슬람 수니파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를 콥트교라고도 합니다. 콥트라는 말은 아랍어의 김트를 영어로 표현한 것으로 아랍어로 김트는 이집트에 사는 원주민을 말합니다. 콥트정교회 신도를 수는 현재 이집트 전체 인구의 12-15%, 최대 12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현대에도 수천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콥트 정교회 신도들의 숫자는 20세기 후반기부터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콥트정교회는 아프리카 각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집트의 콥트 교도 21명이 IS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타와드로스 2세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으며, ‘IS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기 위한 의도로 동영상을 공개했으나, 콥트 교인들이 보여준 용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콥트교회, AD60년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

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는 1세기 중엽인 AD 60년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 운동이 확산됐고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 등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 아타나시우스와 키릴로스 같은 결솔한 지도자들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3-4세기 교회의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출신 클레멘트와 그의 제자 오리겐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하지만 3세기 말 로마로부터 괴비린네 나는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콥트교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핍박은 이른바 ‘은자(隱者)’의 삶을 발전시켜 사막의 수도원운동 등 독특한 콥트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종신대 라온성 교수는 “콥트교회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집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4-5세기에는 유대파와 이교도 등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이 지배적인 이집트에서의 기독교는 주류 무슬림들에게 극도의 차별을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이로 부근 협곡 ‘성 시몬 동굴성당’ 부근에 ‘자발린’(쓰레기 마을)입니다. 무슬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사는 마을인데 3만5천이라는 꽤 규모가 큰 마을입니다. 내년에 이집트에 가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콥트정교회는 풍습이 독특한데, 콥트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1월 7일이고 성탄 40일 전부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활절이 오기 전 55일간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고, 육식을 피하고 올리브유로 요리한 음식만 먹습니다. 또 콥트정교회 교인들은 보통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기억하는 의미, 그리고 일평생 기독교인으로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손목 안쪽에 하늘색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담임목사 청빙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는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교회를 섬기기를 열망하는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저희 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이며, Florida주의 북부 중심 도시인 Jacksonville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소개서(Ministry Information Form)는 pcusa.org/clc 클릭 후, MIF ID: P0310739를 참조).

제출서류 (한글과 영문)

- PCUSA PIF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2 Pages 이내), 가족사진
- 신앙여정과 신앙고백서 (각 2 Pages 이내)
- 목회비전 (각 2 Pages 이내)
- 신학교 졸업증서, 목사안수 증명서(또는 졸업예정 일자와 CPM의 목사후보 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DVD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 3명의 추천서
- 영주권 소유하신 분

- * 제출 서류/자료는 비밀보장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 1차 선정자에게는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 격: · 현재 PCUSA 목사 또는 가입이 가능한신 목사
- 정규 신학대학원 M.Div 학위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하신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자유로운 분

보내실 곳: Billy Song (Email: billysongsos@gmail.com)
Chair of the Pastor Nominating Committee
4591 Ecton Lane E., Jacksonville, FL 32246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전화: 904-355-9793)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Jacksonville
856 Margaret Street, Jacksonville, FL 32204
Homepage: jaxkpc.org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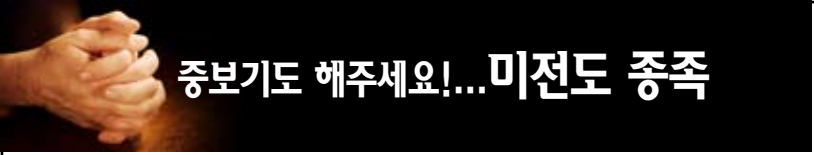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인도네시아의 라와스(Rawas)



164,000명의 라와스족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Sumatra) 동쪽 해안 늪지대에 흩어져 사는 쿠부(Kubu)족이라고 알려진 꽤 큰 집단에 속하는 종족이다. 쿠부족은 유랑하는 니그리토(Negrito)족의 한 작은 씨족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고대에 수마트라의 해변은 정기적으로 해적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적 오누이가 근처강간을 해 여자 아이가 임신했다. 그들은 해적들에게 저주를 받고, 근해의 덩굴에 버려졌고, 처음으로 랄란 강에 쿠부족 부락을 세우게 됐다. 17세기에 라와스족은 수마트라 남부의 팔렘방에서 온 라투 세누훈(Ratu Senuhun) 왕자에게 정복당했다. 그 때부터 최근까지 라와스족은 말레이시아 사람들과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 팔렘방의 언어, 사회 구조, 종교는 받아들였다.

삶의 모습
쿠부족처럼 라와스족은 숲에 살며 여러 강 근처 늪지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대부분의 라와족 들은 압(yam), 옥수수, 쌀, 사탕수수를 경작한다. 이들은 근면한 노동자들은 아니기에 들판이 잘 관리되지는 않는다. 음식물은 대부분 정글의 생산물과 작은 사냥감으로 충당된다. 기본적인 식단은 멧돼지, 물고기, 원숭이, 바나나 그리고 야이다. 라와스족은 "시러프(sirup)"라고 불리는 정작된 마을에서 산다. 집들은 벽이 없이 대나무와 잎들로 대지 위에 지어져 있다. 보통 한 촌락이 세 채에서 다섯 채 정도의 집들로 구성된다. 연장자가 추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모든 라와스족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이름은 같은 시러프의

구성원들에게만 알려진다. 다른 촌락의 사람들은 "저 작은 강의 사람들"로만 불릴 뿐이다. 한 정착 촌락의 사람들이 다른 촌락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면 축제도 없고, 성인식같은 의식적 행사도 없고, 다른 공동체 모임이 없기 때문이다. 라와스족이 이웃인 말레이 사람들과 갖는 드문 접촉은 전통적으로 조용한 무역을 통해서였다. 예를 들면, 라와스족 사람들이 말레이 무역상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면 무역상들은 그들이 교환하려고 하는 물건을 놓고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게 된다. 만약 거래가 만족스러우면 라와스족 사람들은 놓여진 물건을 가지고 숲 속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과 물질적인 문화가 간소함

에 따라, 라와스 사회는 사회적 및 종교적 발전에서 부족한 면을 나타낸다.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라도 음악악기나 춤 같은 것이 알려진 게 없다.

신앙
쿠부족이 모슬렘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치료의식같은 다양한 "정령승배"적인 제사를 시행하고 있다. "샤만(shaman)"이라고 불리는 치료사는 그들을 위해 영혼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행하게도 라와스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자료가 없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현재 성경을 라와스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 종족 집단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기관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회성장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세한 연구가 긴급하다.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향한 지역 모슬렘들의 적개심이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종종 핍박을 당한다. 다른 문제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임으로써 라와스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갖는 우리의 책임이다. 오래된 전통이 복음전파를 막는 것처럼 보인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전통보다도 더 강하시다. 아마도 의료기술과 농업 훈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라와스족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일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전 세계 6887개 언어 중 60%는 번역된 성경 없어

전 세계 6887개 언어 중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서공회 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UBS)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단편(쪽복음) 이상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총 2935개이며, 성경번역이 없는 언어는 3952개라고 23일 밝혔다.

성경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4억9000여명으로,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번역된 성경이 있는 언어 중 지난해 성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563개다. 이는 2014년보다 21개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1334개, 단편(쪽 복음)이 번역된 언어는 1038개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지난해 출간된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은 20개, 해설 성경은 2개였다.

UBS는 2013년부터 '100개의 성서 번역 완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말 기준 9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이 가운데 53개 언어로 된 성경이 출판됐다. 이 가운데 미얀마의 '쿠미 친 성경'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제작·출판됐다. 쿠미 친 신약성경은 1958년 출판됐으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구역성경 번역·출판이 중단됐다가 2001년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비로소 성경전서의 번역·출판이 완료됐다. 라이베리아에선 에볼라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성경 번역이 진행돼 두 가지 언어의 단편 성경이 출간됐다.

필리핀에서 한인 선교사 피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인 선교사가 피살됐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선교사 심재석(57) 씨가 20일 새벽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서 가스 통으로 보이는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8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영사협력관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심 선교사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교회 사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가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심 선교사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교사는 2000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연회 인천동지방 지구촌선교교회 파송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동북부지역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빈민촌 구제 사업과 교육 선교 사업을 펼쳐왔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안정윤(55) 선교사와 남매 심하영(20)군, 심하은(19)양을 두고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필리핀선교사회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사고수습과 장례준비에 나섰다. 현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직원과 현지 경찰, 김승환 필리핀한인선교사회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마쳤고, 시신은 안타폴로시티 소재 '헤븐 오브 앤젤스(heaven of angels)'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교사의 소속 교단인 기감 선교국도 부장 김영주 목사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째 은혜 가운데 사역을 펼치던 심 선교사의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20일) 밤 현지로 가서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데 대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것은 울들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해에는 한국인 11명이 살해됐다. 김재신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사건 직후 긴급 한인안전



대책 합동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현지 교민 피해에 따른 교민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낙태금지법 통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 의회가 19일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낙태금지법이 발효되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우 대 웨이드' 판결(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폴린 주지사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을 거론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도 올라 있다. 미국의 주 정부들 사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낙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많은 낙태시술 기관이 폐업했다. 그러나 뉴욕의 낙태권리 지지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오클라호마 주의회의 결정은 위험적이며,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다.

SC, '임신19주 이후 낙태금지' 법안 통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임신 19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있거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19주차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태아 이상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이번 법안을 찬성 79, 반대 29로 의결했고, 상원에서는 찬성 36, 반대 9로 승인했다. 법안은 현재 니키 헤일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17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12개주에서 법안이 발효됐으며 3개주에서는 법안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아직 제한적 낙태금지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법안을 지지한 웬디 내니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이 궁극적으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남녀 임금격차, 과학적 전문직일수록 커

미국에서 과학력·고소득 직종일수록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지 웰스트리트저널(WSJ)은 446개 직종의 남성과 여성 임금을 분석한 결과 의사, 금융직 등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직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컸다고 17일 보



도했다.

WSJ에 따르면 남자 의사의 연봉은 평균 21만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여자 의사의 연봉은 이의 64%인 13만5천 달러에 그쳤다. 또 다른 고소득 업종인 투자자문역의 경우 남자는 10만 달러를 받았지만 여자의 연봉은 6만2천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미 노동부 통계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미국 여성이 동일 학력 남성 임금의 76%를 받고,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그 수치가 79%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학력·고소득 직종의 성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이는 전문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대체인력을 찾기가 어려워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 은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에 단절되고, 또 육아를 위해 추가 근무를 포기한다"며 "그래서 임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소득 직종인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양해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골딘 교수는 시카고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한 남녀학생들이 졸업 후 동일한 임금을 받았지만 10년 후 여성은 남성의 57%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를 지난 2010년 발표한 바 있다.

전문직종 중에서도 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금융과 의료였다. 금융직의 경우 여성들이 고위험 고수익의 일을 맡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면서 성과급이 적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사 역시 여성들이 연봉이 낮은 소아과 등을 선택하는 것도 연봉을 낮추는 요인이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산 출산 등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늘리고, 새로운 양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전했다.

IVF, 75년 만에 첫 아시아계 새 대표

미국 대학생 선교단체인 IVF(Inv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대표를 맞는다. 주인공은 대만계 미국인 톰 린(43·사진)이다. 현재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가 8월 취임하면 북미 선교단체인 중에서는 최초의 비백인계 지도자가 된다.

미국 IVF는 그동안 청년 선교대회인 아바나콘퍼런스과 소수계 리더를 개발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다민족 사역을 추구해왔다. 린 부대표는 5년간 이들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IVF 리더십은 남성과 여성, 소수인종 등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린 부대표는 1994~2001년 하버드대와 보스턴대학생 시절, 새로운 학생모임을 주도하는 등 캠퍼스 사역에 힘써왔다. 이후 25개국 도시를 위한 단기팀 프로젝트와 유학생 사역, 학생 선교훈련, 100개국 IVF 지부와와 협력 등을 주도했다.

세계선교계에서는 이미 아시아나 남미 출신 리더들이 속속 회장이나 대표직을 맡으면서 비서구권 리더십이 약진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선교 리더십이 비서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 오래 산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16일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교회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5개월을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학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렸다.



연구는 미국간호보건연구(US Nurses' Health Study)가 수집한 중년여성 7만4000명의 기록을 토대로 했다. 연구진은 "종교적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교인이 사망률도 33%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사람의 습관과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연결고리를 찾아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에는 우울증, 흡연, 사회적·정서적인 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예배와 건강의 연관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의사가 '건강을 위해 교회에 가야한다'는 처방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신앙생활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미 있는 사회 참여'의 한 형태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고무적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집단 평균연령은 60세였고 16년간 이어진 연구 중 1만3500명이 사망했다. 연구진은 "모집단이 중년 여성이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남성이나 청년층,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인에게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힐러리·트럼프의 최대 난제는 '역대급 비호감' 극복하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역대 최고의 '비호감' 후보로 꼽힌다.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은 두 후보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모두 자당 유권자들부터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20일 분석했다.

WSJ과 NBC방송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56%로, 긍정적 시각(32%)보다 24%포인트 높았다. 트럼프는 부정적 시각이 65%에 달했으나 긍정적 시각은 24%에 불과했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비호감도가 트럼프를 넘어섰다. 응답자의 61%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트럼프의 비호감 응답률은 56%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줄었다.

WSJ는 최근 수십 년 사이 대선후보가 거의 확정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두 사람만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후보는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대선에서 이미지 반전을 이룬 후보가 있기는 했지만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년 대선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4월 11%였던 비호감도를 11월 대선 직전에는 7%의 호감도로 끌어올렸지만, 당시 그는 응답자의 4분의 1 가량이 그를 모른다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신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인지도가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비호감도를 낮출 여지는 별로 없다고 WSJ는 내다봤다. WSJ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큰 호감도 개선은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당원들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1992년 대선 이래 당선된 모든 후보가 자당에서 최소 80%의 호감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의 호감도가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와 공화당 성향 무당파층에서 트럼프의 호감도가 6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42%를 찍었던 비호감도는 12%포인트 하락,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7일 1천5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코멘터리 (1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

이청득심

경청이란 한마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속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는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傾聽)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경청하는 습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렵다. 인간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6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어렵고 힘든 만큼 경청의 힘은 실로 엄청난 파워를 지닌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리더의 힘은 경청으로부터 온다.

도대체 경청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토록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경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즉 경청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듣는다는 것, 그것은 포커스를 맞추어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고기가 촉수고 세상을 세세하게 느끼고 인식하듯이 상대의 제스처, 눈빛, 태도, 손동작, 움직임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말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읽어낼 수가 있다. 사람은 무언가 뜻을 이루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잘 들어 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힘,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잊지 말자.

첫째,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경청하는 습관이다. 자신

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습관 하나가 상호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둘째, 경청은 상대를 기본 좋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 존중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경청은 성공을 부르는 대화 습관이다. 영업의 달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영업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업 비결인 것이다.

셋째, 설득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은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들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경청이 그 해답이다. 리더는 마땅히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한다. 제대로 잘 들으면 상대방의 기본이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나의 이미지

경청은 타인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경청에서... 신뢰 · 기본전환 · 설득 효과

와 호감도는 상승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경청에서 나온다. 리더여,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 보자. 현대사회에선 경청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마트 리더라 불릴 수 있다. 결국, 경청할 여력이 없는 리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지도자들이여, 조직원(회사원, 성도)들이 신바람이 나서 신명 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조직원(회사원, 성도)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라. 듣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들을 귀를 가지라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들으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하고 대체로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별해서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 가운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 둘째, 계산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듣는다. 셋째, 할 말을 생각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듣거나 때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때로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때로는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듣는다.

성경은 이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구약을 보면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계속해서 신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먼저 듣는 일에 주력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이다. 잃어버린 들을 귀를 회복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다.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경청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인디언 토킹스틱

경청은 습관으로 발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인디언 토킹스틱(Talking Stick)’이라는 것이 있다. 인디언들은 회의를 할 때 이 토킹스틱을 사용한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누구도 끼어 들 수 없다.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준다. 우리가 토킹스틱을 생각하며 들을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말할 때 토킹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실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공감적 경청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위로를 받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당신도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길 소원한다.

sondongwon@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우리아이 행복지수 높이는 비결

15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한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8.2점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네팔의 어린이들보다 낮았다. 옷, 컴퓨터, 인터넷 등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품들의 소유만으로 보면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풍요로운 나라인데도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이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의 경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익숙하고 부모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자녀들의 행복감을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품이 빈약하면 행복할 수 없는 법이다.

행복을 위한 성품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좋은 성품 곧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어린이들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긍정심리학자 나세니얼 브랜든(Nathaniel Branden)은 ‘자존감이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과 우울함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서 금방 행복감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의 성품이 뒷받침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인데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즉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지시만 하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주면 인지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어려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된다. 이는 곧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성품교육법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교육하고 있다.

첫째,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믿어주고 행복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노력한다. 가족은 자녀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믿어주고 행복한 기억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믿음을 보여주고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준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길러주려면 사회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긍정의 3단계’를 활용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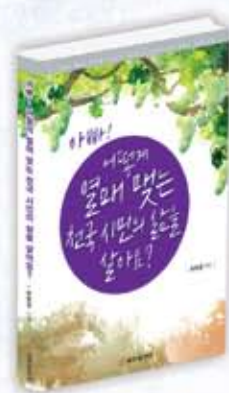
1) 멈추기 - 부정의 사건이 닥칠 때 절망을 선택하기 전에 멈추는 훈련이다. 2) 생각해보기 - 자신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3) 선택하기 - 그중 가장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희망을 가로막는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하겠니?’, ‘넌 안돼’ 하고 자녀를 비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부모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낙인효과가 생겨서 부모의 말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

아빠! 여기생을 어떻게 드려요?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산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록과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각 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제 제15차 KWMF 한인선교대회 1주일 앞으로

오는 6월 3일(금)부터 6일(월)까지 4일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라는 주제와 ‘첫 사랑 회복과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라는 부제로 열리는 KWMF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KWMF대회는 KWMC가 주최하는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6월 6-10일)와 함께 1988년 시카고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30년 만에 LA로 옮겨 미 서부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 KWMC의 우산아래에서 전반적인 행정을 준비하고 개최해왔던 것인데, 이번엔 행정적인 독립으로 진행된다.

2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회장 KWMF 송충석 선교사는 “한사람이 오는 것은 전 세계가 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며, “이곳 남가주 역시 선교지다. LA를 위해 기도하고, LA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려



KWMF 관계자들(왼쪽부터 공동대회장 한도수 선교사, 대회장 송충석 선교사, 마주준비위원장 김영일 선교사)이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 한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다른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머무는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환영했으면 한다”며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6월 5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남가주 한인교회들을 선교사들이 방문 선교보고를 하게 된다. 주최 측은 남가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재 헌신과 미완성 복음, 즉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에 목적을 두고 선교주일 행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교사대회는 3번의 아침예배와 10번의 세미나, 그리고 3번의 부흥 사경회가 준비되었다.

강사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진재혁 목사(지주교회),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김동영 목사(목민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최형근 박사(서울신대 교수), 스타트 선키스트 박사(폴러신학대학원장), 김병윤 선교사(필리핀), 고석희 목사(KWMC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KWMC 사무총장), 강윤식 원장(기쁨병원), 송충석 선교사(KWMF 대표회장) 등이다.



에반겔리아(복음)대학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교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총 25명 졸업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2016년 학위수여식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 2016년 학위수여식이 21일 오후 4시 본교강당에서 열렸다.

학생처장 한기원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신현국 박사가 환영사, 정필흠 목사(전임총회장)가 기도, 이정남 박사가 성경봉독, 글로벌장로교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송창호 목사(전임총회장)는 ‘예수님만 바라보자’(히12: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졸업생을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이수영 박사의 사회로 시작, 신현국 총장이 학위수여와 총장훈화를, 이용규 목사(동부장로교회)가 격려사를, 정재훈 박사가 축사를 했다. 또한 하늘꿈교회 찬양팀이 축하 특송을

불렀다.

이어서 재학생 대표가 졸업생에게,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 그리고 학교가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이사장 신윤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에반겔리아 대학교의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목회학박사: 고현철, 김신은, 손성수, 심석현 △목회학석사: 박민수, 배의진, 서정일, 심장섭, 이옥수 △문학석사: 김수현, 최승균 △성경문학사: 강영국, 부희선, 서영국, 신명선, 오성재, 윤화숙, 이동희, 이미영, 이준성, 전은희, 조원근, 조이삭, 최식 △평신도신학원: 주사라.

(박준호 기자)

F.I.T. 창작뮤지컬 ‘Faith’ 순회공연

뮤지컬 선교단 F.I.T.(Free in The Truth 단장 이혜연)가 작년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순회공연에 이어 올해도 ‘Faith’란 창작선교뮤지컬로 여러 지역에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F.I.T.는 모든 자유로운 예술의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뮤지컬선교단으로, 2007년부터 대형교회 열린예배에서 위임댄스, 스킷드라마, 뮤지컬 등을 창작해 공연했고, 2010년부터 뮤지컬선교단으로 사역을 확장해 ‘Faith’, ‘삶과 죽음사이에서’, ‘공원의 천사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등의 창작 뮤지컬을 순회공연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뮤지컬 문화선교의 길을 걸어온 이혜연 단장(폴러 선교문화학사), 한용주 부단장 및 여러 달란트를 가진 믿음의 지체들이 설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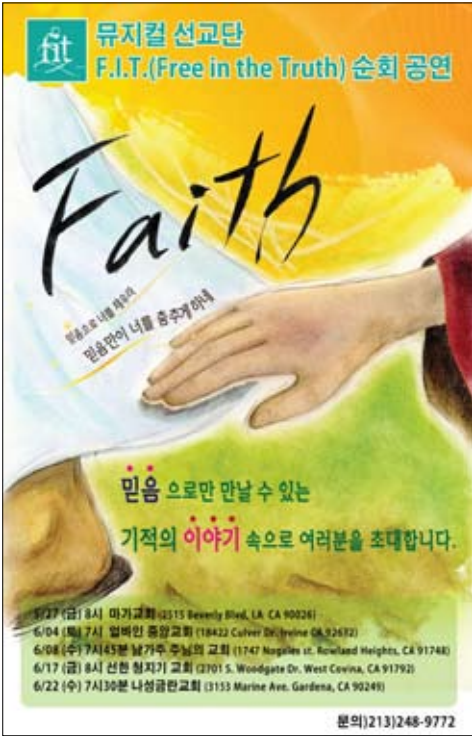
이번 순회공연 일정은 △5월 27일 저녁 8시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6월 4일(토) 열반인중앙교회(담임 이상대 목사) △8일(수) 저녁 7시45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17일(금) 저녁 8시 선한정지

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22일(수) 저녁 7시30분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공연은 무료이며 CD구매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다.

F.I.T.는 오는 9월 작품 ‘Faith’ 공연을 원하는 교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선착순 4교회).

▲문의: (213)248-9772 (기사제공: 뮤지컬 선교단 F.I.T.)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음악회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성황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행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 주최로 셰리 토스 팍 이스트에서 19일 오후 6시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형수 목사(신학담당 부회장)의 시작기도와 임성필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용덕 목사(사기)가 기도했으며, 민승기 목사가 ‘끈기라는 덕목’(벤전2:19)의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용덕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세미나는 △선교와 리더십 △선교와 성령 △선교와 O.T △세계선교동향 △선교사의 건강관리 등을 다루게 되며 6일(월) 폐회예배 전에 정기총회를 갖게 된다.

또한 KWMC대회 4일째는 ‘선교사의 날’로 정하고 모든 행사 또한 선교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점심 식사 후 열리는 선교대전 시간, 오후 2시20분 선교전략 좌담회에 이어 3시부터는 대회 참석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40개 지역(큰 단위 국가와 종교권으로 분류) 선교포럼의 주제 강좌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아주사대학 광장에서는 20개 권역을 담당해 모든 선교사들이 각 지역 별로 모이게 된다. 이때 일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관심 있는 선교지역으로 찾아가 ‘선교사와의 만남’을 갖게 된다.

오후 8시 저녁 집회는 ‘선교현신의 밤’으로 어린이, 청소년, 영어권, MK 등 선교대회 참석자 전원이 참석해 선교 콜링의 시간을 갖고 각 지역 선교사들을 비롯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당일 선교 헌신자들을 위해 안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마련된다.

KWMC는 대회장간 70여개 부스를 통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회 문외아 등록은 www.kwmf.info 또는 (213)507-3875, (516)277-2081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기도에 굶주리게 하소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푸른 하늘같은 마음, 행복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다. 기도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심정이다. 기도하고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을 꿇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때는 주님의 특별한하신 인도함이 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길 때에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한다.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뜨거워져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 487장을 부르고 싶은 감동이 왔다. 그냥 부르다가 찬송가를 찾아 불렀다. 가사를 생각할 때 갑자기 가슴이悶해지며 눈물이 쏟아진다.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할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2. 시험격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부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3. 근심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친구 멀리하고 너를 조종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영혼을 진동시켰다. 그렇다. 찬송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때 잠자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찾아오신다.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성령의 기쁨부음심이 임한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굶주린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을 쳐야 한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기도에 굶주리게 하소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대상17:25).

bible66@gmail.com



SRTCS 6회 졸업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RTCS 제6회 졸업식...LA캠퍼스 총 9명 졸업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초교과 신학교인 남부개혁신학대학및 대학원(SRTCS, President: Dr. Terry Curtis) 제 6회 졸업식이 휴스턴 새생명침례교회(New Life Baptist Church)에서 21일 오후 3시에 열려 총 9명이 졸업했다.

금번에 2014년 문을 연 LA 캠퍼스(학장: 김희창 박사)에서 3명의 문화교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가 20일 논문 디펜스와 교제를 가졌고, 4명(1

명 명예박사학위)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6회 졸업식에서 박사학위수여자는 이종애 목사, 정은순 장로, 이민승 목사, 노예식 목사(명예신학박사).

LA 캠퍼스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박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상담전화: (213)219-0649 (기사제공 SRTCS)

(7면에서 계속)

그러나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만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들을 들어 올려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신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만 더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분이다. 포도나무가 그늘에 가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들어올려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가차 없이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다 죽은 가지는 아니다. 잘 돌보아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독교인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eiro)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kathairei)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katharos)”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kathairei'는 “깨끗하게 하다, 손질하다”라는 뜻이다. 가지치기도 나무 손질에 속한다. 'katharos'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이 그렇게 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것은(eiro)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햇빛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들어 올리시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가진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여있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요15:8).

jinhlee1004@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지성소 예배’

정기적인 지성소 화요 집회 준비를 위한 공개 예배인 ‘지성소 예배’가 6월 14일(화) 오후 8시 뉴욕새힘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특별게스트로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제시유 음악감독, 이광선 집사가 출연한다.
▲문의: (646)258-4161

패밀리리치 무료 여름가족캠프

패밀리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8월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에 걸쳐 HNA 팰리세이드 컨퍼런스 센터(Palisade, NY)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족 간의 대화기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여름가족캠프’를 개최한다. 금년 캠프는 초등학교 자녀들과 부모님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미연방정부 후원 프로그램으로 무료다. 한편 패밀리리치는 지난 11일 후원골프대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201)241-4422

뉴욕장로연합회 제39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뉴욕장로연합회 제39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39차 조찬기도회가 지난 19일 오전 8시 중앙제일교회(담임 반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일과 4일,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목양장로컨퍼런스를 잘 마쳤다”며, “이제 8월에 ‘다민족선교대회’를 앞두고 있다. 뉴욕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각기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고 고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민족 간에 화합과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장로는 “또한 앞으로 장로연합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단체로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주시며 매월 드리는 기도회에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정권식 장로 인도로 박성범 장로의 기도 후 반상석 목사가 시편 84:5-8을 본문으로 “뉴욕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황규복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와 장로연합회를 위하여”, 이보춘 장로가 “

조국과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하여”, 정덕상 장로가 마무리 통성기도를 함께 드렸다.

이어서 김연장 장로가 헌금기도를, 임형빈 장로가 헌금 특송을 했으며, 반상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이 있는 후 박용기 장로가 식사기도를 하고 조찬을 나누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또 5월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케익을 자르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장로연합회가 연례 행사로 주최하는 ‘다민족선교대회’는 8월 28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리폼신학대학(원)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변화, 성숙, 열정” 주제...강사 조영준 목사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김영식 목사)이 주최한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5시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변화, 성숙,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 강사로 초청된 조영준 목사의 회심 정통교회 담임은 “웨슬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행4: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인 △성화 △그리스도인 삶의 온전성에 대한 교리를 전했다.

조영준 목사는 “웨슬리 목사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 오셔서 감리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라며 3가지로 설명했다. 다음은 설교 요약.

첫째, 제도화로 경직된 감리교회를 탄식하실 것이다. 제도화되면서 신앙의 열정은 식고 정치화와 부패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한국감리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감독제를 놓고 싸웠으며 감독제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감독선거도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에서 강사 조영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너무 정치화됐다. 감리교내의 여러 정치집단들-히스패닉, 북미원주민, 아시아, 여성목회자, 동성연애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감독들은 믿음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만 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상대적인 신앙을 한탄하실 것이다. 상대주의는 하나님 이 주신 계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만큼 알지 못 할 수 없다. 메시지 없는 교회에 왜 사람들이 오며, 확신 없는

설교에 왜 귀를 기울이겠는가.

셋째, 윤리의 위기를 말하실 것이다. 신학의 상대주의는 자연히 윤리적 상대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관용주의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한국에도 많이 퍼지고 있다. 웨슬리 목사는 교회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등 네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감리교회는 지금 혼돈된 세상윤리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른 진리 입각 순수한 복음 전하라”

뉴욕리폼신학대학(원)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뉴욕리폼신학대학(원)(학장 유상열 박사)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22일 저녁 6시 본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교학 석사 1명, 기독교교육학 학사 1명이 졸업했다.

유상열 학장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조에 편승하지 않는 바른 진리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계획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졸업생들은 이 일에 부름 받았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과 성실과 거룩함으로 한평생 복음의 일군으로 충성하라”고 훈시했다.

졸업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재학생 도국진 집사가 기도한 후 조국환 초대학장이 말씀을 선포했다.

조국환 목사는 “주수할 일군”(눅

10: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군”이라며, “말씀에 대한 지적 훈련과 영적 훈련, 그리고 실제 사역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일군이 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능력자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목사는 “교회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베드로후서 1장 5-10절 말씀처럼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알기위해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다하라”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은 최원정 교수가 학사보고를, 유상열 학장이 학위수여 및 훈시를, 최희익 총무처장이 축사했으며, 김영환 집사가 축가를 부른 후 졸업생 대표 설문덕 집사가 감사했다.

이어 졸업생이 학교에,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뉴욕리폼신학대학(원)은 예장(합동총신측) 교단신학교로, 2004년 뉴욕 주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신학 교육기관으로 2016년도까지 학사 석사 총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2007년 도미니카공화국에 분교를 설립 총 24명을 배출했으며 2012년 아시아 지역 신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사 석사, 총 12명을 배출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로!”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19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2016년 대회는 총 5회의 준비기도회를 갖게 된다.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대회 인원 동원과 후원금 지원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나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만호 목사는 오전 후 각 준비위원들에게 지역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전달했다.

기도회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설교 문석호 목사, 특별통성기도 임병남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재권 목사(뉴욕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양민석 목사(강사 원팔원 목사)와 Wu Alan 전도사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참가, 낱새, 안전사고, 대회후원을 위하여),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문석호 목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눅15:8-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시대의 관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유경쟁 구조 속에서 성공과 성취, 만족 등에 있지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자유는 큰 작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주님의 관심은 홀리사나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반기는 대회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에바드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모은 성금 전달을 위해 이날 밤 현지로 출발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부회장 김홍석 목사와 선교위원장 문석호 목사, 총무 박진하 목사 일행이 성금 1만2천 달러를 재난지역에 직접 전달하러 간다고 밝혔다.

할렐루야 대회 3차 준비기도회는 임실행위원회 모임과 같이 6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순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주일학교: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훈련: 화, 토 오전 10:00 Tel, (718)28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CB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718)358-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66-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38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gethsemane.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원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3:30 수요 성경공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A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경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콘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mk@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9: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in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교협 신뢰회복에 힘쓰겠다”

제46대 남가주교협 회장 취임감사에배

제46대 남가주교협 강신권 회장 취임감사에배가 22일 오후 4시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 강신권 회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남가주의 1,580개 교회와 교단 그리고 500여개의 선교단체 및 기관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원한다”며, “교협의 신뢰회복에 힘쓰겠다. 교단과 교회와 수많은 기관이 협력해 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그에 따른 제도



제46대 남가주교협 회장 취임감사에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처로 열목져있다. 흠어진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형성에 힘쓰겠다. 셋째, 교협의 발전연계를 이루겠다. 작게는 남가주 넓게는 미 전역과 전세계에 흠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타인종까지도 점진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해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 미 주류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수석부회장의 사회와 세계성경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정우성 목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김관진 목사(부회장)가 성경봉독을, WBPS 중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한기형 감독(교협 중경회장)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자’(엡 4:1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은수 목사가 헌금송을 불렀다. 이어 한기형 목사가 신임회장에게 교협기를 이양했으며 강신권 신임회장이 취임인사를 했다.

이날 엄구서 목사(남가주목사회장), 민승기 목사(OC교협회장), 정시우 목사(교협 명예회장)가 축사했으며, 에릭가제티 LA시장의 축사는 박세현 목사가 대독했다.

또 줄리악 전도사가 색소폰 특주를, 브라질 마르코 목사와 7명이 축송을 했다.

이어 정해진 목사가 강신권 목사에게 기념축하패를 전달했으며, 정해진 목사의 축도로 이날 취임감사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CABC 후원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린가운데 공연에 참가한 뉴욕 이스트만 음대 출신 음악가들과 CABC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뉴욕 이스트만 음대출신 연주자들 공연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음악회 성황

오는 6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말리부에 위치한 패퍼다인대학교(총장 앤드류 벤텐 박사)에서 열리는 CABC(California Bible Conference)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음악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20일 미주서부장로교회(담임 김선익 목사), 21일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22일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NYBC)에서 헌신한 뉴욕 이스트만 음대 출신 연주자들이 CABC의 선포를 위해 남가주를 방문해 이루어졌다.

미주서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음악회는 엘빈 신(바이올린), 박지은(비올라), 신지인(첼로), 이선영(피

아노), 기지혜(바이올린), 박지은(바이올린), 김수민(피아노), 소프라노 김현지 등 이스트만 음대출신의 자매들이 출연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4중주를 비롯 피아노와 바이올린 협주, 첼로와 피아노 협주, 피아노 독주, 그리고 오페라곡과 찬양을 들려주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후원음악회에 참여한 김현지 자매(이스트만 커뮤니티스쿨 강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같은 무대에 서게 됐다.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찬양의 장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것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데이빗송 싱어즈 제1회 콘서트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지휘자 송규식 목사의 지휘에 맞춰 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나의 백성 나의 찬송’ 주제로 데이빗송 싱어즈 제1회 콘서트 성황

데이빗송 싱어즈(지휘 송규식 목사) 제1회 콘서트가 송규식 목사가 대표로 있는 홀리보이스 미션 주교회 22일 저녁 7시30분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송요셉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A cappella Aneheims’를 무반주로 불렀으며 ‘Horn Mass’를 불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관객들이 송제로 이어진 순서는 △성전에 들어가며(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성전 뜰/번제단에서(어린이의 노래, 피의노래) △성소에서(말씀의 떡상/기도의 향단/금촛대 사이로 운행

하시는 성령님) △지성소에서(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산속에서(코이노니아/삶의 찬양) 등의 색성으로 나뉘어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여선주, 앨토 김승희, 조지영, 테너 오우영 목사, 바리톤 방상근, 최승재, 이시호 등이 곡 중 솔로로 나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관객들이 송규식 목사의 지휘에 맞추어 ‘사랑의 열매’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이상남 목사(등대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LA사무실 오픈예배가 19일 오전에 열렸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LA사무실 오픈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LA사무실 오픈예배가 19일 오전 11시 본 재단 사무실(1458 S. San Pedro St, LA #244)에서 열렸다.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백운학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기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열린 2부 순서는 사회자가 내외귀빈 소개를 했으며, 조종규 의원이 축사를, 이우호 총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그리고 박종술

목사가 축가를 부른 뒤 재단을 위한 합심기도시간을 가졌다.

이우호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3부 순서는 모국 글로벌선진교회 학생방문단 모집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에 관한 건, 쿠바 방문에 관한 건,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한국참전용사 초청 한국전 메모리얼 서비스 행사 등에 대한 안건을 나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 예심 전도대학 제14기 수강생 모집

예심전도대학에서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초 메시지와 천국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일식이전 전도 법, 순간포착 전도 법, 철관 전도 법 등 환상적인 전도 법들을 강의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은 2016년 6월 7일(화) 개강하며 총 13주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남가주빛나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문의: (714)401-9874

한국의 34번째 민족대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LA특별전시회 및 기념행사

1919년 3.1만세운동 현장 등을 사진으로 담아 전세계에 알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LA특별전시회가 △6월1일부터 7일까지 우정의종각, △6월4일부터 12일까지 윌페어, △6월부터 10일 KWMC세계선교대회가 열리는 APU에서 열린다. 한편 기념행사는 △6월3일(금) 오후 8시 남가주주님의교회(한의준 목사), △4일(토) 오전 5시20분부터 6시20분 새생명미전교회(강준민 목사), △5일(주일) 오후 2시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7일(화) APU(존월레스 박사)에서 갖는다.

▲문의: 82-2-766-2019

제2회 한부모가정축제

제2회 한부모 가정축제가 6월4일(토) 오후5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 520 S. Lafayette Park Pl, #200, LA, CA)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유호정 박사(폴리신학교)이며 등록은 무료. 저녁식사 제공.

▲문의: (949)885-6787, (213)386-9191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 관계자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발달장애인과 음악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구성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과 음악적 재능기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디스어빌리티 (This Ability)’ 오케스트라(디렉터 김윤정)가 단원을 모집한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현재 첼리스트 최경은 교수(엘가미노 칼리지), 디렉터이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윤정 선생(음악치료 전문가), 첼리스트 레이너 크로셋 씨(USC대학원)가 이끌고 있다.

최경은 교수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축복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축복을 더욱 귀히 여겨 그들이 더 행복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한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음악을 통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연령 제한도 없다.

김윤정 디렉터는 “음악치료를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치료를 통해 행동, 언어, 신체적 능력이 개선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했다”며, “그들이 음악을 통해 기쁘고 값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앞으로 주 2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오케스트라는 무료 그룹 레슨 및 리허설, 여름캠프, 가을정기연주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740)818-1781, primaxfondation@gmail.com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학생교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학생교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영양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2: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영양-KOC, 킹덤대문교회)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sg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어져 있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박스 걸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한인학생교회: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월-토)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구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전통)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성경기도: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계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 pastor@ia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God's time 70번째 이스라엘 희년과 한국광복 · 분단 70년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과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IN ISRAEL」

일 정 | 2016년 6월 21일(화) ~ 30일(목) (총 9박 10일 / 3일간 성회, 5일간 기도투어)
장 소 | 예루살렘, 텔 엔 나스베(미스바) 및 이스라엘 주요 성지
참가대상 | 한국교회,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 관 |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준비위원회, 이스라엘 미스바 준비위원회
후원기관 |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기독교TV, CBS기독교방송, CGN TV, BradTV, JOY예루살렘방송, KNT.ISRAEL

대 회 장



신신묵 목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강 사



릭라이딩스 목사
예루살렘 수컷할렐 기도의집 대표



탐헤스 목사
예루살렘 열방 기도의집 대표



아셀인트레이터 목사
Revive Israel 대표



김진호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강문호 목사
갈보리교회 담임



유석근 목사
알이랑교회 담임



김한식 목사
한사랑교회 대표

하난 루카스 목사 (메시아닉 유대인 이스라엘 연합회장), 미카엘 아론 목사 (테헤라트-아 교회 담임), 안드레아스 목사 (Father's house 대표),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부총장), 벤자민 오 목사 (미국 뉴저지 사랑과진리교회 담임)

간증 다니엘박 교수, 장○○ 선교사, 탈북자 ○○○

7대 핵심가치

1. 회개
2. 십자가의 도
3. 이스라엘의 회복
4. 한민족의 부르심
5. 연합
6. 통일
7. 부흥

취지와 목적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겔 37:9)

▶주님의 재림을 위한 두 가지 충족조건

복음이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마 24:14)과 함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됨(마 23:39)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 충족조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생기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세계교회가 가운데 있었던 반유대주의 핍박사를 동일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엡 2:15)을 이룹시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동운명체

이스라엘과 같은 섬의 후손(창 10:21-31)인 한민족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사 41:25;55:5, 롬 10:19-20, 계 7:1-3). 또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듯이, 2016년 남북분단 70년이 된 지금 하나님의 통

치의 중심 예루살렘(시 122:5)에 올라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출 19:6)의 중보를 힘입어 우리 민족의 열원, 통일을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마지막 때, 이란과 북한의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멸절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과 한국이 형제요 공동운명체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마지막 선두주자로 우리 민족을 세우실 것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처하게 된 위기의 지금, 사무엘의 때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미스바로 모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과 한국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대하 7:14).

한국 교회여!

2016년 6월 이스라엘로 달려가 예루살렘에 올라 미스바로 모입니다!

등록 및 참가 회비 안내

한국에서 참가하실 분 - 320만원 (항공료, 숙박, 기도투어 포함)
해외에서 참가하실 분 - US \$1,400 (숙박, 기도투어 포함, 항공 티켓은 각자 구입)

예 약 금 - 한국참가자 30만원, 해외참가자 US \$200 (입금 후 전화 확인, 환불 불가)

접 수 - 한국교회 미스바 기도성회 준비위원회

등록계좌 - 우리은행 1002-081-77153 오재복(미스바기도성회)

문 의 - 한국 070-7532-9327, 02)445-4735

(1636) 누르고 '미스바대각성기도성회'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www.mizpah.kr mizpahprayer@naver.com

이스라엘 문의 - 이정훈 (972)058-689-9348 mizpah2016@gmail.com

한국 및 해외 협력기관

▶ 한국

국가기도회, 굿피플의사회, 기독교영성총연합회, 기독교사연협회, 시니어선교한국, 어글로, 이스라엘지역네트워크(IMN), 탈북자동지회, 통일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한국컨버케이션, 한사랑선교회, 향아리엔터테인먼트, AN선교회, HIM, KCSJ, 274얼라이언스 등

▶ 해외

미주기독교방송국, 일본글로벌미션센터, 일본한국기도의집, 파리기도의집 등

후원계좌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에 후원하여 주십시오.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327-20-111666 사단법인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국민은행 699201-01-264970 김한식(미스바대각성성회)
이 현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과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한 한알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미스바 기도회

매 주일 저녁 6:00 서울한사랑교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17)
대중교통 이용시 :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5번출구, 마을버스 서초18번, 서초21번, 강남10번
한정거장 뒤 하차 → 직진 100m 우리은행 끼고 우회전 → 서울미디어빌딩 지하
문의 : ☎ 070-7532-9327, 02)445-4735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IN ISRAEL



내가 먼저 회개하며 섬기는 분들 (미스바 준비위원회)

상 임 고 문	김선도 김홍도 서기행 조용기 지 덕
자 문 위 원 (2016년도 교단장)	강기원 김기안 김길수 김명희 김소자 김영수 김옥자 김운복 김철환 김희신 문희성 박무용 박종덕 박종선 배동률 배타선 서안식 서태원 송덕준 신상현 안만길 안이영 양연길 유동선 유영식 윤광섭 이광훈 이규일 이규희 이동춘 이영구 이문규 이애리 이재범 이재웅 이태준 임종원 임창무 장중현 전용재 전정수 정동환 정순균 정일량 조갑문 지영철 채영남 최부옥
대 회 장	신신묵
상임대회장	강문호 권병기 김동권 김재권 김진호 박태희 안성욱 윤석전 정인도 최병두
실무대회장	한창영
공동대회장	김재승 김해철 박정근 오 건 원종문 이규희 이상형 정인도 최원권 홍순경
준비위원장	김한식
부 위 원 장	김기원 김병문 김에스더 김유순 김홍대 류성렬 배차선 윤경원 이강구 장병한 전덕호 조상범 조석규 제이콥권 최창규
본 부 장	성동경 이예경 이혜훈 이 호 최경숙
상 임 총 무	김탁기
실 무 총 무	김동구 박덕근 박상규 양영오 한동철
서기 / 이홍규 부서기 / 홍완표 회계 / 송성익 유경선	
사무총장/이재형 감사/권상윤 홍덕선 기획조정실장/박재남 진행/오바록	
대외협력/부성범 홍보/손요셉 중보기도/박덕근 국제협력/이 정 행정/임경희	

이스라엘 미스바 준비위원회

고 문	김성한	
부 위 원 장	강태운 윤덕재 조형호	준 비 위 원 서영주
실 행 총 무	장창근	
총 무 단	권바울 김정혁 명형주 서영주 여호수아 요나티 욱동일 이종은 정규채 조이스정 차서웅	서 기 이정훈

남 · 북간에 사랑의 결연을 위하여

▶취지

남한의 ①교회 ②미스바 참여자 ③탈북자 ④의료진 ⑤뜻을 함께 하는 분은 누구나 ①~⑤까지의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남 · 북간에 자유 왕래가 실시되면 북한의 군 단위 지역에 가서 치료 (의료진들이 휴가를 북한에서 보내기 운동을 실시)와 기도와 식량, 의약품 등을 나누는 사랑의 결연 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용 방법

취지에 공감하는 교회, 단체, 개인은 북한의 군 단위 지역 3곳을 가장 원하는 순으로 ①②③을 선정하여 미스바 준비위원회로 자신이 속한 교회, 단체, 개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와 함께 보내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를 위한 심리학적 기초 (34)

(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 심리학적 기초들에서 우리는 인간의 발달(Human Development)과 관련된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심리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발달이론들(Human Developmental Theories)은 기독교 교육자들 혹은 모든 기독교 교육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육자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심리학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발달이론들은 교육의 대상인 인간들이 태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육체가 자라가듯이, 여러 가지 심리학적 측면들도 시간에 따라 자라간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자라가고 변화해 가는지를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점들은 다양한 방법들에 걸

첫째로, 미취학 아동들의 영성 발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안전감, 훈육, 기쁨, 그리고 예배 등을 경험한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여타 다른 기독교적 실체들에 대한 개념과 자각을 발달시키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교회, 자아,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발달시킨다. 물론 그들에 대한 개념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둘째로, 학령기 아동들의 영성 발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독교적 사랑과 책임에 대한 지각을 기른다. △기독교적 실체들에 대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간다. △신앙과 기독교적 삶에 적합한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들을 배운다. △건강한 자아상을 개발시킨다.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하고, 또한 성경적 인간이해에 위배되는 부분들과 편향적인 부분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많은 연구들과 그 연구 결과들이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구조주의의 경향이 강해서, 인간이 가진 다른 다양한 측면이 도외시 되었고,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단계들을 상정하여 이들을 일괄적인 닫힌 시스템 안에 가둬들여서 인간발달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한 서구사회의 인간들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아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 경험들을 제외하고 서구사회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경험들이 마치 인간 발달의 기준인 것처럼 전체적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부인하도록 이끌었다. 부분을

인간발달이론을 기독교적 비평과 분별력 가지면 교육사역에 효과적
성경적 진리와 상충하나 가이드라인 제공, 사용프로그램 평가에 도움

쳐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또한 해당 분야에서 나이에 따라 어떠한 발달과제들을 갖게 되는지를 연구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삿피아제(Jean Piaget)는 인간의 인지 발달(Cognitive Development)분야에서, 에릭슨(Erik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학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분야에서, 콤버그(Lawrence Kohlberg)는 인간의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분야에서, 가울러(James Fowler)는 인간의 신앙 발달(Faith Development)분야에서, 그리고 비치크(Ruth Beechick)는 인간의 영성 발달(Spiritual Development)분야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의 양상과 특성 및 과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들을 정립해왔습니다.

예시로 들은 위의 이론들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발달이론들을 이 이야기에서 모두 다 자세히 다룰 수 없기에, 비교적 구체적인 발달과제들을 제시한 마지막 예시인 비치크의 영성 발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 논의들의 주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 이슈들”(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패즈미노(Robert Pazmino)는 비치크가 제시한 4단계의 기독교인들의 연령대별 영성 발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영성 발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독교적 사랑과 책임에 대한 지각을 기른다. △적 그리스도적인 사회적 압력에 강력한 기독교적 인식을 다지도록 한다. △신앙관련 지성적 공적들에 대비하여 성경적 지식들과 논리적 지적 기술들을 발달시킨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개발시킨다. △기독교적 봉사의 책임을 수용한다. △영원한 기독교적 가치들의 기초 위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배운다. △삶의 것을 추구하는 자기 훈련을 늘려 나간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영성 발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성숙과 배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경적 책임을 수용한다. △하나님 중심한 통일되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든, 세미나를 개최하든, 다양한 인간 발달 이론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요즘에는 인터넷 정보들만 잘 활용하여도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고, 우리의 사역에 응용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이 인간의 전인성, 다양성 및 문화적 평등성 등의 성경적 진리와 상충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달이론들은 심지어 신앙 발달이론이나 영성 발달이론조차도 한인 교회 교육을 위한 연령별 교육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에 어떠한 수준 및 양상의 내용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고등부 학생에게는 저러한 내용을 저러한 방식으로 가르치면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다는 교육내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하나의 경향성으로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면, 절대적인 것으로 맹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비평들을 염두에 두고 논법력을 가진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현존하는 발달이론들을 우리의 교육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주님의 사역방법(마12:19-21)찬509장

그리스도 사역의 특징은 조용하게 아버지
의 구속을 모두 이루신 일입니다. 첫째, 그
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장하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침묵관함심으로 진리를 들어내는
참 성직자셨습니다. 친히 가르치신 대로 자
이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으로
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많은 세대
싸우기 쉬운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합

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마12:22-29)찬221장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셨음을 본문을 어떻게 증명하니까? 첫째, 귀신 들린 자를 성령으로 쫓아내심이 증거합니다 (28). 바알세불에 의하여 치유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비평은 도리어 그 나라의 임함을 더 강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들은 눈이 어두워 강하게 일하는 그 나라를 알 수

수 성령휘방 죄(마12:30-37)찬337장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죄가 사함 받으
나 성령 행방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성령
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일이기 때
문입니다(30-31). 그래서 반복적인 상관화
된 죄가 위험합니다. 둘째, 때로 증거자 인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32).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룩하여 성
령으로 영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

목 주님이 주신 표적(마12:38-45)찬102장

주님이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고
기 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 니느웨에 맡
을 전해 큰 부흥을 가져온 사건은 그리스도
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39-40).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
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큰 구원운동이 일어
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올
몬의 지혜를 들으러 난방여왕의 놀람처럼

금 예수님의 가족관계(마1 2:46-50)찬94장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첫째, 혈연관계
를 뛰어넘습니다(50). 이것은 혈연관계를
무시함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관계가 우선
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가족관계를 통해 구
원역사가 많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일반
은총이 구원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구원관계는 더 높고 깊은 관계 곧 성령
세례의 연결로 돼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으
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하

토 세 가지 위험(마13:1-17)찬197장

본문에 나타난 네 발 중 가시발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 원인은 후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3가지 문제 즉,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의 위험이 연쇄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적 근심이 위험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지만 세상적 근심은 불신앙으로 사방에 이르며 자기 근심을 풀려 하인 맞은 실령이 되게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합니다(벧전5:7). 둘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위험합니

니다. 둘째,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겸손과 은유의 바탕으로 일하셨습니다. 일하신 후에도 숨기를 잘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록을 행하시고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원수를 단숨에 처리하실 수 있으신대도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신 게 그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었습니다. 둘째, 더 강한 자이신 그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29).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왕이 임하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움직임을 확신하여 이 시대를 이깁시다.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33-36). 행함의 열매는 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생기고 말로 나타납니다. 무익한 말 한 마디로 심판을 받는 이 엄중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말 한 마디가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 세상의 자기 백성이 몰려와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42). 셋째, 이 세대는 많은 표적을 구하나 이 진정한 표적을 가질한 이유는 일곱 마귀가 일하기 때문입니다(43-45). 그러나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일하시니 반드시 그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실상을 즐기며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나만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은 성경이고, 행함은 성경의 기준을 따릅니다. 셋째, 영생의 교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영생의 관계는 오직 성령의 교통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가족관계를 존중히 여깁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건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an.org Tel. (82)-490-7000, Fax. (8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양장동 340-1(131-231)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경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043-367(이곡역)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호2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646-3181~3, (8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0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6261-9222, (82)-7-1008 서울 강동구 수곡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5-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월곶동 410-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문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6:00 Tel. (02)418-0191, 사택(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계로3동 17길 29(합성동) www.shinch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786-6579, 사택(8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철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111-4327-5555, 사택(02)427-5555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월요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경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8-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신임 총회장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낮은 곳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

-총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교단 중에서 가장 크고 모범적인 교단 중의 하나인 저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선출 해주신 총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인이기에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며 오히려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회기 동안 힘을 다하여 교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1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 나갈 비전과 계획은?

이번 총회의 주제가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Be a Man of Vision and Passion)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틀이며 원리입니다. 비전은 목표요 방향입니다. 열정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힘이며 추진력입니다. 믿는 자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열정은 자연히 생깁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단의 위상을 확립하고 회원 간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고택원 목사 가족사진

저희 교단은 3-4년 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직도 약간 잔재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피해를 입

회원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

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신뢰도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면 외적으로 실추된 교단의 위상도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회의 진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이나 시간 사용이 잘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총회 개최 예배시 전체 총대들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낮에는 총회 역사 상 처음으로 회무 없이 액티비티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각자 원하는 일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셋째 날 회의 진행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전 총대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의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제들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신경을 써야할 문제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총대들이 회의가 끝난 후 만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신임 회원을 위해 신학교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이신 Lillback 박사님과 비브리컬신학교 총장이신 Frank James 박사님이 총회에 참석해 총대들에게 신학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총회 대표들이

이상 서로 적대 감정을 갖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예의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기에 서로의 길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장님의 목회철학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대한항공 국제여행지점에서 근무하는 중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 모든 조건이 제게 맞는 맘에 드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직장에 일생을 바쳐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런데 대답이 ‘아니오’였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면 훗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젊음과 정열을 아낌없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세상적인 부귀나 명예가 별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악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장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남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 너무도 행복했고 지금도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주님 지금까지 이 땅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고택원 목사(63세)는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서울 고려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남도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도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Th.M)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필라델피아 새한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필라교협 목사회 회장과 교협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군선교연합회 필라델피아지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고광순 사모와의 사이에 출가한 2녀와 사위, 손자손녀 7명이 있다.

〈유원정 기자〉

IS, 움츠러들었지만 테러 활성화 더할 수 있다

포린 출리시, IS 영토 축소로 인한 득실 보도

2014년 6월 29일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에서 출발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돌연 자신들이 ‘칼리프’가 통치하는 국가가 됐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포했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에서 이라크 동부 디알라까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은 물론, 9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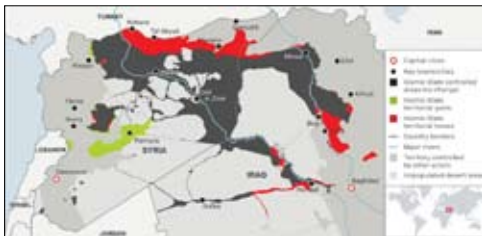
맹위를 떨치며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일부를 점령한 IS의 꺼지지 않는 확장은 미국을 주도한 동맹군들의 다양한 공격들로 드디어 종지됐고, 점령지를 하나 둘씩 잃어간다는 사실은 지난 1월부터, 서방 언론의 공통된 보도였다. 따라서 ‘파리 테러’ 이후, IS의 세

력은 일단 점유하고 있는 점령지들을 다시 연합군이 재탈환했기에,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이라크에서 작전을 이끌고 있는 미 101공수사단의 사령관인 개리 볼레스키 소장은 “IS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군 등 국제

중동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런데 최근들어 IS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 미군 등 국제동맹군의 압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포린 출리시(FP)는 최근 “IS가 가장 전성기일 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장악했던 영토의 45%와 20%가량을 각각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Mapped: The Islamic State Is Losing Its Territory-and Fast).

동맹군의 계속되는 공습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 및 러시아를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군과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12월 바그다드 인근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 모술 탈환전에 돌입했다. IS가 장악했던 팔미라 고대 유적을 탈환한 러시아군은 이달 초 유적지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영국 군사정보 분석기관인 IHS제인은 자체 분석 결과 IS의 영토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2014년 말에 비해 22%나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약 40%, 시리아에서는 10-15%가량의 영토를 잃었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개월 새 IS의 영토는 더 쪼그라든

셈이다. 계속되는 국제동맹군의 공세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진 IS는 비대칭적인 대응으로 테러만 남발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요건인 ‘영토 확보’는 온데간데없고 본래 출신 성분인 테러 단체로서의 면모만 남은 셈이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연쇄 폭탄테러가 잇달아 2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IHS제인 테러·내란연구소 매튜 헨먼 소장은 “연이은 테러야말로 IS 세력이 위축됐다는 증거”라며 “이제 IS가 더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는 IS 영토 축소로 인한 군사적 영향력 약화가 당장 IS의 영향력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동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예측한다 (ISIS losing territory, weakening — but this could force group to spread out more into global terror, expert warns).

중동 전문가인 스피어 박사(Dr. Jonathan Spyer)는 IS와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 전선들을 둘러보고 나서 언론에 “IS가 전략적 요충지들을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지구촌 곳곳으로 테러 세력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 역시 아프간에서 점령지들을 빼앗긴 후에 국제사회를 겨냥한 테러로 방향을 전향했기에, IS 역시 그러한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